



악취 줄이려 양돈장 폐업 지원하지만...

도, 2018년부터 마을 인접·고령농 양돈장 폐업 보상
정작 폐업 매년 2~3곳 그쳐 악취민원 감소효과 미미

제주의 청정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지나 마을과 인접해 악취민원이 반복되는 소규모 양돈장에 대한 폐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별로 매년 1~2곳이 폐업하는데 그쳐 악취저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가 2018년 3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후 마을과 인접해 냄새민원이 잦은 양돈장 중 수요조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해 폐업한 양돈장은 5곳이다.

양돈장 폐업지원 사업은 돼지 사육두수가 1000두 미만인 영세농 중 마을과 인접해 냄새민원이 잦거나 악

취관리지역 지정이나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 등 악취저감 이행이 어려운 고령농가 위주로 수요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양돈장 폐업이 완료되면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제주도는 시범사업으로 2014~2015년 섬속의 섬 우도와 대정 등 4곳의 양돈장 폐업을 지원했고, 국책사업으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편입된 양돈장 14곳에 대한 폐업보상이 추진됐었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2018년부터는 기존 행정시별로 다른 기준 적용과 지원내용을 감안해 제주도에서 신청 사업장을 일괄 심사 평가하고, 양돈장폐업지원협의회도 구

성 운영중이다. 보상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연간 순수익과 최근 3년 평균 도축장 출하실적에 따라 3년치 순수익을 산출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8년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표선면·강정동에서 각 1곳씩 3곳, 2019년 한경면과 서귀포시 도순동 등 2곳의 양돈장이 폐업했다. 올해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1곳, 서귀포시 표선면과 성산읍에서 각각 1곳씩 모두 3곳에서 폐업을 진행중으로 이달중 폐업보상협의회를 연 후 확정된다.

하지만 폐업 양돈장이 매년 2~3곳에 그쳐 악취 민원이 좀처럼 줄어들이지 않는 등 사업 체감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농가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영업보상비만 지원하면서 농가에서 철거비 부담 등으로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돈장 관련 악취 민원은 제주시 지역에서 2017년 432건, 2018년 982건, 2019년 948건이다. 서귀포시에는 2017년 295건, 2018년 518건, 2019년 951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양돈장 268개소에서 55만1168마리를 사육중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 지역 191개소에서 40만8581마리를 사육중인데,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48개소,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50개소를 차지한다.

행정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당 영업보상비 상한액이 3억원이어서 폐업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지만 폐업지원금을 더 올리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근의 악취 민원 증가는 특정 양돈장과 관련한 반복 민원에 따른 것으로, 올해 폐업을 앞둔 곳들은 모두 냄새민원 다발 양돈장”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처리하라”
희생자유족청년회 어제 국회 앞서 기자회견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9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4·3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가 4·3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
유족청년회는 “제주4·3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잔혹한 말살이었으며, 인권을 짓밟은 범죄행위다.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당대표들은 희생자 배보상을



답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청년회는 “국회와 정부가 제주4·3특별법 정부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제주도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 그리고 제주4·3유족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며 20대 국회내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정의당 “4·3특별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 가능성 유감”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9일 “‘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의 의지 부족이 문제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정부 주무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냈고 이를 컨트롤하는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3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것은 후손된 우리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부석중 해군참모총장
오늘 강정마을 등 방문

제주출신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이 20일 제주도를 방문한다.

이날 부 참모총장은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해군, 해병대 부대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원 지사와의 면담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과 관련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지난달 제주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34대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한 부 참모총장은 구좌읍 출신으로 한동초등학교와 세화중학교,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40기로 해군에 입관했다. 오은지기자



강풍 부는 해수욕장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분 19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에 높은 파도가 일고 모래가 날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10대 지적장애 딸 방임 40대 엄마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10대 장애인 딸을 방임한 4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에 3급인 딸(16)과 함께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2019년 9월 12일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뒀던 악

취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불결한 상태에서 딸을 방치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 자녀를 탓하고 비난하는 등 보호와 양육 의지가 없어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미숙기자

신호등 들이받은 운전자 숨져

제주시 일주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19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39분쯤 한경면 신장사거리 인근 일주도로에서 고모(58)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교통신호등 기둥을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고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도내 골프동호회 관광진흥법 위반 고발당해

미등록 여행 알선 등 혐의
제주자치경찰단 수사 착수
수사결과 따라 파장 일듯

도내 최대 규모의 A 골프동호회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백 개에 달하는 도내 골프동호회가 수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골프동호회는 최근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를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골프동호회 회장 B씨에 따르면 이 동호회는 무등록 여행 알선 및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7년 동호회를 결성한 이후 현재 회원 수만 1만6000여명을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호

회로 발전했다”며 “그동안 회비나 참가비도 받지 않고 골프장 비용만 받으며 동호회를 운영해 왔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도내에도 수백 개에 달하는 골프동호회가 존재하는데, 우리 동호회가 잘못됐다면 모든 동호회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골프동호회 운영과 관련해 정확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에만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르는 골프동호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부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가 이들 동호회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념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엽면시비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탕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압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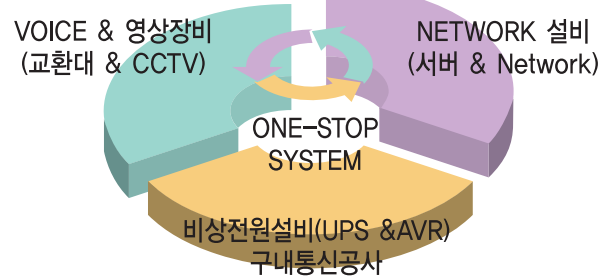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 열린 기술 습득
- ◆ 기술인력 개발
-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